

# 전남도, 반도체 클러스터 도전장... 전력·용수·RE100 강점

하루 130만t 이상 용수 공급과 17.5GW 규모 재생에너지 가능 반도체 삼축 클러스터 구상 본격

전남도가 전력, 용수, 재생에너지 등 준비된 기반을 앞세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국가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다. 지난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 기반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면제 특례와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도 담고 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서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상 중이다. 전력과 용수 확보 여건에서 수도권과 구조적으로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



전남광주 반도체 후보지 조감도.

우고 있다.

반도체 팹 6기를 가동하려면 하루 107만t의 용수와 9.3GW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도권의 용수 여유분은 0.9%에 불과하고 전력 공급 역시 송전망 포화로 한계에 직면했다. 재생에너지 100%(RE100) 요구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입지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다.

반면 전남 서부권은 영암호, 금호호, 영산강호 등을 통해 하루 130만t

이상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전남·광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해상 풍력 확충을 통해 17.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출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요구하는 전력·용수·RE100 3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전남·광주의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도는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광주시와 함께 전남·광주를 하나의 초광역 산업권으로 묶는 반도체 삼축 클러스터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권은 인재와 연구개발 중심지로, 전남 서부권은 대규모 전력·용수를 기반으로 한 생산 거점으로, 동부권은 소부장과 미래 융합산업 거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설계·제조·소부장을 하나의 초광역 권역에서 완성하는 남부권형 반도체 생태계 모델로 수도권과는 다른 전략적 방향이다.

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추진,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 지정과 반도체 팹 유치에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용역은 올해 상반기 착수를 목표로 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반도체 특별법은 전남이 광주와 함께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거점으로 도약할 제도적 토대”라며 “RE100 국가산단과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 미래첨단 국가산단을 연계한 삼축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인구 400만 전남광주특별시로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경북도

#### 대경권 광역 인재 양성 나선다

경북도는 초광역 연계 산업·경제권 단위 성장을 이끌 대학 중심 대경권 인재 양성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 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와 대학, 기업, 국책·지역 연구기관, RISE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중심 초광역 인재 양성 전략 회의’를 열고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 통합과 연계한 초광역 인재 양성 전략과 협업 기반 성장엔진 인재 모델이 차례로 발표됐으며, 이어 대학·기업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경북=김준한 기자

### 경남도

#### ‘경남창업포털’ 연계기능 강화

경남도는 도내 창업정보 허브 역할을 위해 운영 중인 ‘경남창업포털’ 누리집의 창업·투자 연계 지원기능을 강화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남창업포털은 창업 지원사업과 투자 정보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도는 2021년 8월 누리집 개설에 이어 2022년 4월에는 모바일 앱을 구축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한 기능은 온라인 IR(기업설명회) 제공, 창업기업·투자사 매칭 지원, 창업지원 정보 대상 기관 확대 등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 보성군

#### 말차 품은 ‘다향대축제’ 5월 개최

보성군이 세계적 말차 열풍을 반영하며 오는 5월 1일부터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는 ‘보성말차! 젊음을 담다! 세계를 담다!’를 주제로 보성다향대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보성말차’를 주제로 전면에 내세운 첫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보성 차(茶)’를 포괄적으로 조명을 왔던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보성 차를 세분화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말차’에 집중했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 밀양시

#### 상품권 할인율 12%로 변경

밀양시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핵심은 밀양 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전국 최고 수준인 12%로 높이는 것이다.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린 조치다. 아울러 밀양으로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 정착금을 120만원으로 올리고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울산시민 안전보험, 작년 445명 혜택

총 8억6000만원 보험금 지급  
개인보험·재난지원금 중복 보증

울산시는 재난과 사고에서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시민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인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증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시가 시비를 들여 지난 2년간 운영한 결과 총 445명에게 약 8억 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335명이 4억 5000만

원을 보장받았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전반을 포함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와 노인 보호구역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해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때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 보장금이 지급되는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울산시는 구군별 보험 운영에 따른 보장 격차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부터 필수 보장 항목 8종을 지정해 시비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일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원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영양군 “군민 마음건강 지켜드립니다”

복지센터 홍보·교육사업 추진

영양군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해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양군은 언론·SNS 홍보, 각종 제작용 배포, 지역 행사 연계 캠페인,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홍

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3~5월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기간에는 재래시장과 읍·면 사무소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를 강화하고, 9월 자살예방의 날과 10월 정신건강의 날을 전후해 집중 홍보주관을 운영해 군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

또한 산나물축제, 군민체육대회 등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한 정신건강 체험부스 운영, 마음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검사, 포도존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군민 참여형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대구교육청, 미래형 과학교육기반 추진

대구과학교육 운영 계획 발표

대구시교육청은 미래형 과학교육기반을 조성하고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해 과학적 소양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6학년도 대구과학교육 운영 계획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기초과학 탐구역량 강화 ▲과학교사 성장과 도전지원 ▲과학기술인재 성장 지원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조성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과학교육을 추진한다.

대구교육청은 탐구·실험 중심의 기초과학교육 강화를 위해 과학교과 시수 중 30%이상 실험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과학실험 교구 및 재료 구입비로 학교기본운영비 3%이상 확보해 과학탐구활동의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가설 설정부터 탐구 결론까지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학실험 가이드북을 보급해 과학실험수업을 지원한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도구를 활용한 자기주도 과학기반 융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과 깊이 있는 과학탐구활동 지원을 위한 학생 과학동아리 지원(40개팀), 지역 대학 연계 과학탐구활동(45개팀) 등도 운영한다.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은 지능정보기술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 과학교육 구현을 위한 수업 공간 구축 사업으로 109개교 대상으로 교당 3000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지능형 과학실 온(ON) 실천교사(6명)를 운영해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 공동체 지원 등 과학교사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운영한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 김해화정초, ‘VEX 월드 챔피언십’ 출전

세계 최대 규모 로봇 경진대회

김해화정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구성된 ‘시나브로 팀’이 국내 최대 로봇 경진대회를 제패하고 세계 무대 출전권을 따냈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김연준·송주성·김민준 학생으로 이뤄진 시나브로 팀은 지난달 30~31일 제주 KIS 제주캠퍼스에서 열린 ‘2025~2026 VEX IQ 한국 챔피언십’ 초등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52개 팀, 중등부 39개 팀 등 총 91개 팀이 참가했다.

이에 따라 시나브로 팀은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미주리주 세



대회 참가 학생들 모습.

/경남도교육청

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VEX 로보틱스 월드 챔피언십’에 대한민국 대표로 나선다. 이 대회는 REC 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경진대회로, 전 세계 60여 개국 2400개 이상의 팀이 참가하며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